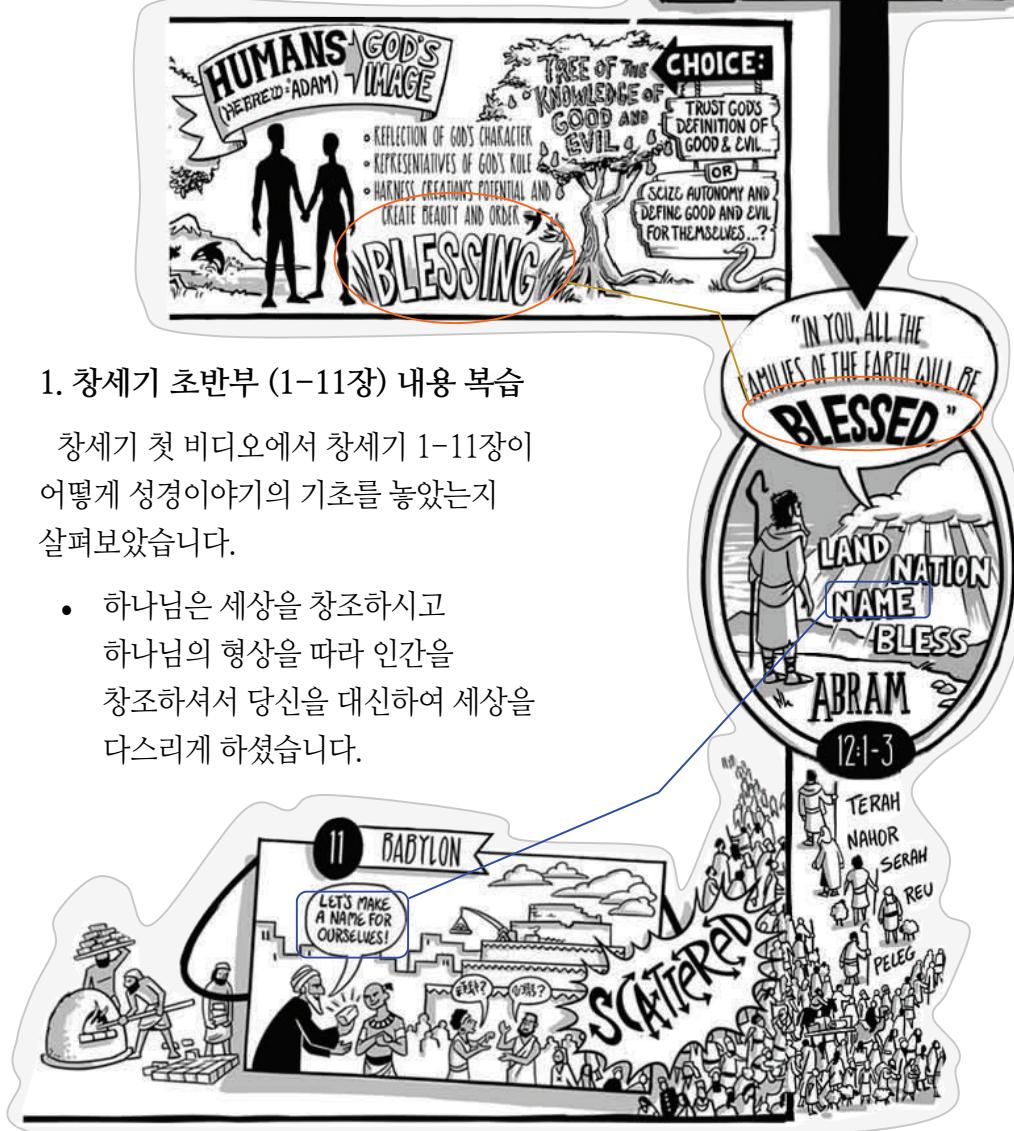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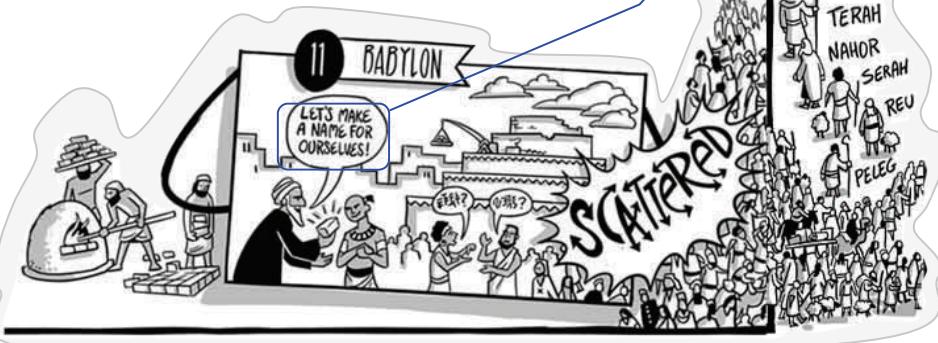
# Genesis II (12~50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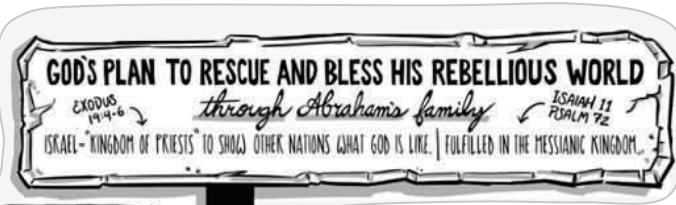
## 1. 창세기 초반부 (1-11장) 내용 복습

창세기 첫 비디오에서 창세기 1-11장이 어떻게 성경이야기의 기초를 놓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여 당신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The Bible Project 의 성경 각권 요약 Read Scripture 동영상 대본을 번역하고, 도표 그림을 따와 편집한 것으로, 모든 판권은 The Bible Project에 있으며, 무단 전재와 상업적 사용을 금합니다.



- 그러나 인간은 죄를 선택하고 반역하여 세상은 통제불능의 폭력과 죽음으로 떨어지고
- 그 모든 결과는 바벨론 사건에서 반역과 흩어짐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걸까?

## 2. 연결고리, 아브라함 이야기 (12:1-3)

바벨론의 흩어짐에서, 창세기의 저자는 한 가족의 족보를 따라가고, 결국 한 사람 아브람, 곧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는 이에게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하신 하나님의 약속(12:1-3)으로,

이제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땅은 언젠가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아브람으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그에게 복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이 약속은 앞에서 읽은 1-11장과 연결이 됩니다.

바벨론은 교만하여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열심히 애를 썼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이름도 없는 이 사람에게 큰 이름을 하사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 주심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주신 맨 처음 복에 연결됩니다.

그럼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축복하시려는가?"



그 해답은 1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것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역하는 세상을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하여  
구하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이 한  
가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또 이런 이유에서 그들은 나중에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여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는 선지서와 시가서  
저자들의 주제가 됩니다.

그들은 이 약속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모든 민족들에게  
공의와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위의 모든 내용들이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 그 약속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나머지 부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아브라함, 그리고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이죠.

### 3. 족장들의 이야기 (12:1-3)

각 세대의 이야기는 두 개의 주요  
내용으로 엮어집니다.

- 먼저 아브라함 가족의 각 세대는  
실패를 반복합니다.

그들은 계속 정말 나쁜 결정들을 내리고  
자신들의 삶을 망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트립니다.

-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계속 확인해 주시기를, '그들  
스스로에게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결단코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들을 복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계속 실패함에도 말이죠.

#### 3.1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가족이 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실조차 부인합니다. 물론  
복잡한 문제가 생겼죠. 뿐만 아니라

ABRAHAM  
& SONS'  
REPEATED  
FAILURE

GOD IS  
FAITHFUL  
TO RESCUE  
& BLESS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자, 사라는 자신의 종인 하갈과 아브라함의 동침을 권합니다. 이것 역시 이 가정에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심지어 15, 17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위 공식적인 '언약'으로 만드십니다.

매우 고전적인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너의 가족이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아이가 없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의심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창 15:6)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시고,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즉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 전 세계에 미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표시로 그 가족의 모든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그 가족의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상기시키는 상징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을 보고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납니다.

### 3.2 이삭과 야곱

야곱의 이야기는 극적으로 이 주제를 연출해냅니다. 출생에서부터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인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 그에게서 장자권과 복을 훔치고, 마찬가지로 늙어서 잘 못 보는 아버지를 속여 형의 복을 훔쳐, 가족을 떠납니다.

야곱은 4 명의 아내를 취하지만, 그 중 한 명 라헬만 사랑합니다. 이는 가족 안에 경쟁 관계를 불러 일으킵니다.

야곱을 낚춘 유일한 사건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이 속을 차례였던 것이죠.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겸손해진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참 희안한 이야기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데, 또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도 안 바뀌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결단을 존중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야곱에게 넘겨 주시며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뜻이죠.



### 3.3 야곱의 아들들

이제 창세기 나머지 부분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모든 주제들이 한 데 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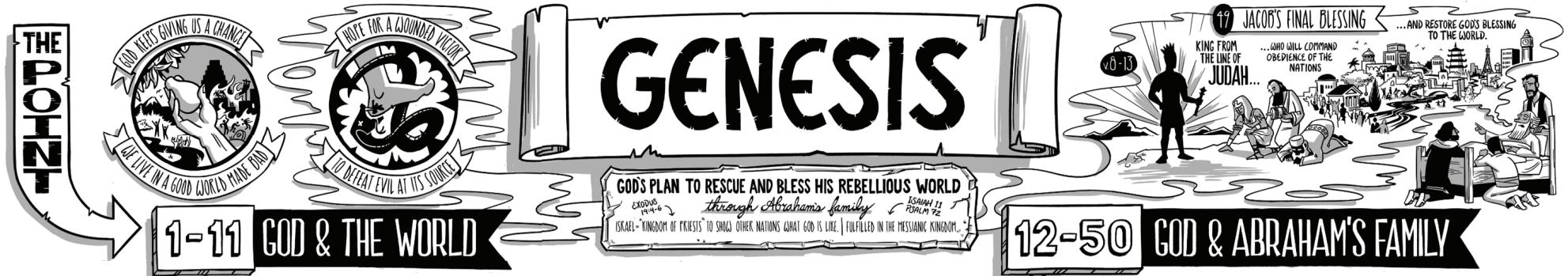
야곱은 둘째로 어린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사랑했고, 특별한 옷(채색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른 열 명의 나이 많은 아들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그를 납치해서 죽이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죽이는 대신, 그들은 요셉을 이집트에 노예로 팔고 거기서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가족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셔서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고, 바로 왕은 요셉을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요셉은 극심한 기근 가운데 이집트를 구하고 마침내는 그의 형제와 가족을 아사직전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 가족의 어리석음과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만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형제들의 악함조차도 생명 구원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요셉의 이 말은 사실 전략적으로 이 책 끝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요셉 이야기의 요약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 4. 창세기 전체 요약 및 성경 전체와의 관계

창세기 3장부터 사람은 계속하여 이기적으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제 생각대로 움직이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계속 실패를 반복함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결단코 인간에게 복 주시기로 하십니다.

특히 이 점은 여인의 후손에 대한 신비로운 약속이 성경 여러 책을 통해 어떻게 발전되는지에서 잘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상처받은 승리자가 오셔서 뱀을 밟으시고 근원적인 악을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족보에 직접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복을 열방에게 전파하실지 그 한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매우 중요한 축복 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나이들어 죽기 전에 열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유다의 차례가 되었을 때, 야곱은 유다(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지도자가 되고,

언젠가 한 왕이 나올 터인데,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에덴 동산의 복을 온 세상에 회복시킬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마치고 야곱이 죽고, 그 후에 요셉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며 번성합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약속을 남기고 더 발전시키지 않은 채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로 하여금 다음 책을 읽게 만듭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